

- 주요 뉴스: 미국 뉴욕 연은 조사,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예상,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
 - IMF 총재, 경제 관련 좀 더 긍정적 시각을 가질 이유가 존재
 - EU, 금년 성장률 전망을 상향. 기술적 경기침체 회피 가능할 것으로 판단
 -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, ECB의 최종금리 도달은 당초 전망보다 빨라질 가능성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인플레이션 안정 기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
 주가 상승[+1.1%], 달러화 약세[-0.3%], 금리 하락[-3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 예상 및 기술주 강세 등이 원인
 유로 Stoxx600지수는 방위산업 관련주 강세 등으로 0.9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국채금리 하락 등이 영향
 유로화가치는 0.4% 상승, 엔화는 0.8% 절하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 가능성 등이 반영
 독일은 경기침체 회피 가능성 등으로 강보합 마감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72.1원, -5.2원) 0.3% 하락, 한국 CDS 보합

		2/13일	2/10일	전일대비			2/13일	2/10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137.3	4,090.5	1.14%	국채 금리 10y	미국	3.70%	3.73%	-3bp
	유럽	462.03	457.89	0.90%		독일	2.37%	2.36%	0bp
	중국	3,284.2	3,260.7	0.72%		영국	3.40%	3.40%	1bp
	일본	27,427	27,671	-0.88%	CDS 5y	한국	42bp	42bp	0bp
	한국	2,452.7	2,469.7	-0.69%		중국	62bp	61bp	1bp
	달러지수	103.29	103.63	-0.33%	위험 지표	EMBI+	-	384	-
유로화	1.0725	1.0678	0.44%	VIX		20.34	20.53	-0.93%	
환율	엔화	132.41	131.36	-0.79%		WTI유	81.14	79.72	1.78%
	위안화	6.8183	6.8145	-0.06%	원자재	구리	406.0	401.7	1.08%
	원화	1,277.3	1,265.2	-0.95%		금	1,853.5	1,865.6	-0.65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뉴욕 연은 조사,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예상.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

- 뉴욕 연은 1월 조사에서 소비자들은 1년 후 가계소득의 3.3% 증가를 전망. 이는 전월 대비 1.3%p 하락한 것으로 10년래 최저. 1년 후 예상 소비증가율도 하락(5.9%→5.7%).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과 동일(5.0%→5.0%)했고, 3년 및 5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각각 하락(2.9%→2.7%) 및 상승(2.4%→2.5%)
-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률 예상치는 전월 대비 올랐고, 주택가격 및 임대료 증가율은 떨어질 것으로 응답. 연준 인사들은 통상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. 이에 이번 결과는 투자자의 인플레이션 및 금리인상 지속 관련 우려 완화를 유도
- 한편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연구에 따르면, 연준의 통화긴축이 임대료 상승 둔화에 일조. 연방기금금리를 1%p 인상할 경우 2.5년에 걸쳐 임대료 상승률을 3.2%p 낮추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평가. 다만 통화긴축에 따른 임대료 상승 압력 악화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단
- 연준의 보우만 이사는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까지 떨어뜨리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해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. 아울러 물가안정 회복을 위해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서 상당 기간 유지되어야 한다고 첨언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IMF 총재, 경제 관련 좀 더 긍정적 시각을 가질 이유가 존재

- 기오르기예바 총재는 미국의 경기침체 회피 가능성 및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 글로벌 경제가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. 금년 글로벌 경제 전망이 좋지 않지만 이전보다 덜 부정적이라고 평가

■ Morgan Stanley와 JPMorgan, 최근 주가 상승에 주의가 요구

- Morgan Stanley의 Michael Wilson 스트래티지스트는 최근 주가 상승이 연준의 통화긴축 의지와 기업실적 부진 가능성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. JPMorgan의 Mislav Matejka 스트래티지스트는 금년 주가 고점이 1/4분기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며, 이에 향후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

■ EU, 금년 성장률 전망을 상향. 기술적 경기침체 회피 가능할 것으로 판단

- 금년 성장률 전망을 이전보다 높이고(0.3%→0.8%),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의미하는 기술적 경기침체의 회피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. 이번 조정은 가스가격 하락, 정부의 경기부양책, 견조한 가계지출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
- 파울로 젠틸로니 경제 집행위원은 가스가격 하락과 낮은 수준의 실업률 등이 경제활동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. 다만 인플레이션 등의 역풍에 직면해 있어 향후 성장 둔화가 예상되며 구매력 회복도 점진적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

■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, ECB의 최종금리 도달은 당초 전망보다 빨라질 가능성

- 센테노 총재는 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으며, 이는 향후 통화정책 결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. 예상보다 빨리 최종금리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,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시기는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고 첨언

■ 영란은행 해스켈 위원, 고물가 고착화 가능성을 매우 경계할 필요

- 향후 고물가 고착화 위험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, 이를 위해 경제지표도 주목할 것이라고 발언. 아울러 영란은행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

■ 중국 주간 신규주택판매, 2주 연속 증가. 정부 지원책과 경제활동 재개 등에 기인

- 2/5~11일 기간 동안 주요 16개 도시의 신규주택판매는 전주비 40.9% 늘어 2주 연속 증가세. 이는 당국의 부동산 안정 대책과 코로나19 규제 완화에 따른 심리 개선 등이 반영. 1/29~2/4일 기간에는 전주비 707.3% 증가

■ 노무라, 차기 일본은행 총재 지명자의 출구전략 시기는 경제지표에 의해 좌우

- 노무라의 테츠야 이노우에 연구원은 가즈오 우에다 차기 일본은행 총재 지명자는 현행 초완화적 통화정책의 종단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. 대신 경제지표 등에 따라 출구전략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2/14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 강연 및 1월 소비자물가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과 중국,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 건설적 미래 대책 필요 - Financial Times (China and America are locked in destructive codependence)

-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양국의 상호 의존도는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. 미국 경제는 해외자본 유입 및 자산 가격 상승이 중요하며,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미국채 매입이 반드시 필요
- 중국의 경우 정치적 신뢰 부족이 소비자 지출을 억제하고 있으며, 이 같은 여건 지속 시 중국의 경제 성장은 한계에 봉착. 그러나 양국의 경제적 의존 관계는 작은 갈등도 심각하게 증폭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
- 이러한 재앙적 결말을 피하기 위해 미국은 저축 및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실질적 경제성장을 추진해야 하며, 중국은 민간 경제활동 활성화 및 정치적 탄압 중단 등을 통한 국내외 신뢰 회복과 내수 촉진 유도가 중요

■ 미국 기업이익, 팬데믹 이후 기존의 증가세 종료될 소지 - 블룸버그 (Yes, America's Post-Pandemic Profit Boom is Ove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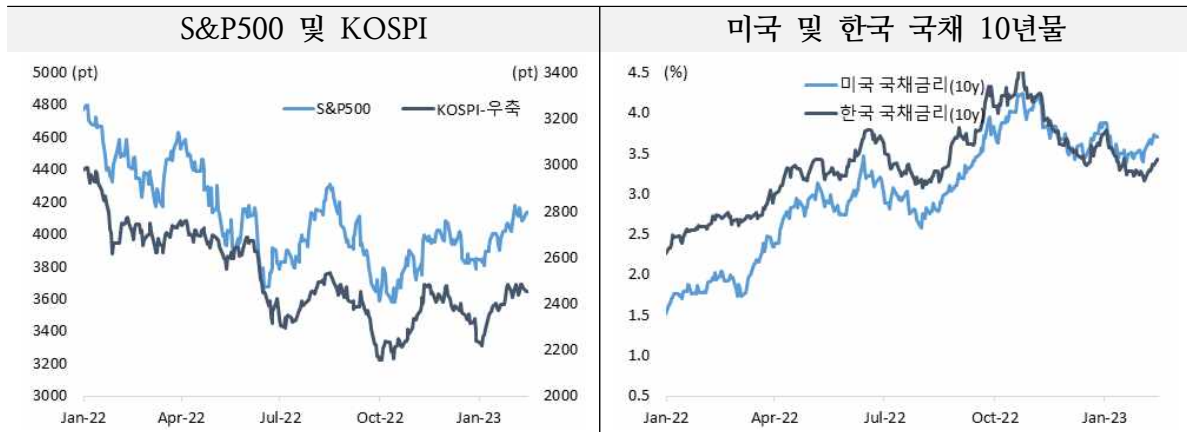
- '22년 4분기 S&P500 기업들의 주당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2.3% 감소해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'20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 기록.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의 순이익 결과가 시장 추정치를 상회. 그러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비중이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
- 기업들은 경기전망 악화 등으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워지면서 이익 증가세가 둔화. 긴축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이 시차를 두고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이를 상당 부분 미반영

■ 중국의 성장 회복, 세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 - WSJ (Don't Count on China to Save the World Economy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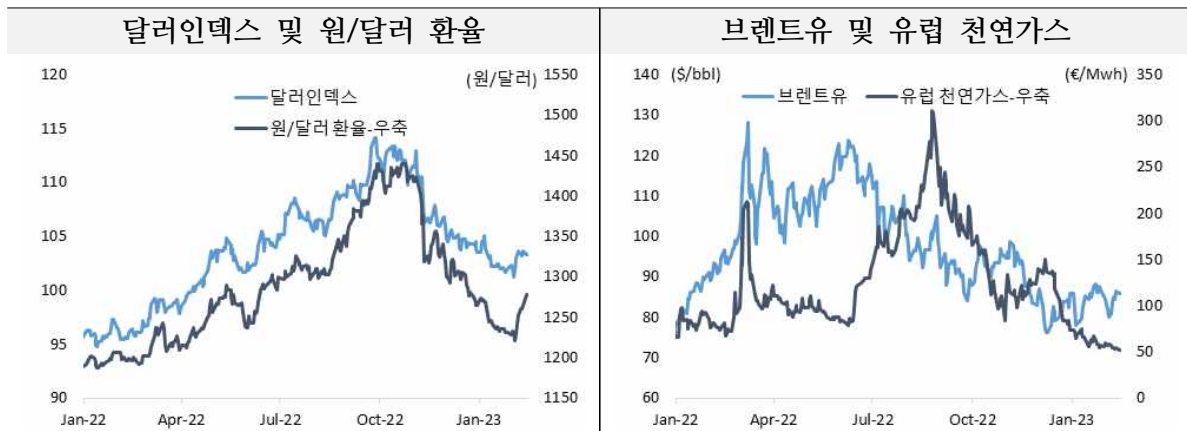
- IMF는 금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5.2%로 예측, 글로벌 경제성장에서 기여도가 약 1/3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. 동기간 미국과 유로존의 성장 둔화 예상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경제성장은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글로벌 경제에 매우 중요
- 그러나 중국 경제의 성장은 국내 서비스 부문에 집중될 전망. 이는 미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. 중국 경제성장의 글로벌 경제 기여도는 1.0%p일 것으로 추정. 중국의 에너지 수입 확대 및 해외여행 증가 기대 등을 고려한다면 원유 수출국 및 인접 아시아 국가들이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

- **일본은행 차기 총재 지명자, 경제문제 해결 관련 과도한 기대는 자제할 필요 - WSI**
(Japan Says Sayonara to Idea of Central Banker as Rescue Hero)
 - 우에다 차기 일본은행 총재 지명자는 구로다 현 총재가 10년 전 취임했을 당시와 유사한 도전(견고한 저물가, 경기부진)에 직면. 다만 당시와는 달리 중앙은행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부족
 - 우에다 지명자는 '00년 당시 일본은행 정책위원으로 중앙은행이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것이 경기부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. 그는 일본의 문제가 만성적이라고 주장하며 종종 중앙은행이 구사할 수 있는 정책수단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견해를 피력
 - 애널리스트들은 그가 취임 후 10년 만기 국채수익률 상한을 수정하거나 없앨 것으로 기대. 하지만 일본의 유동성 함정과 지난해 고유가에 따른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등을 해결할 구원투수라는 과도한 기대를 갖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
- **연준, 금융여건 완화 지속 시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 - 블룸버그**
(Will the Fed Go Longer or Higher? Maybe Both)
- **미국 4/4분기 기업실적, 경기침체 관련 엇갈린 신호를 발신 - Financial Times**
(Earnings: more mixed messages)
- **유럽, 공공부채 문제 해결 위해 유로안정화기구(ESM) 개혁이 중요 - Financial Times**
(A lesson for Italy from Germany's debt managemen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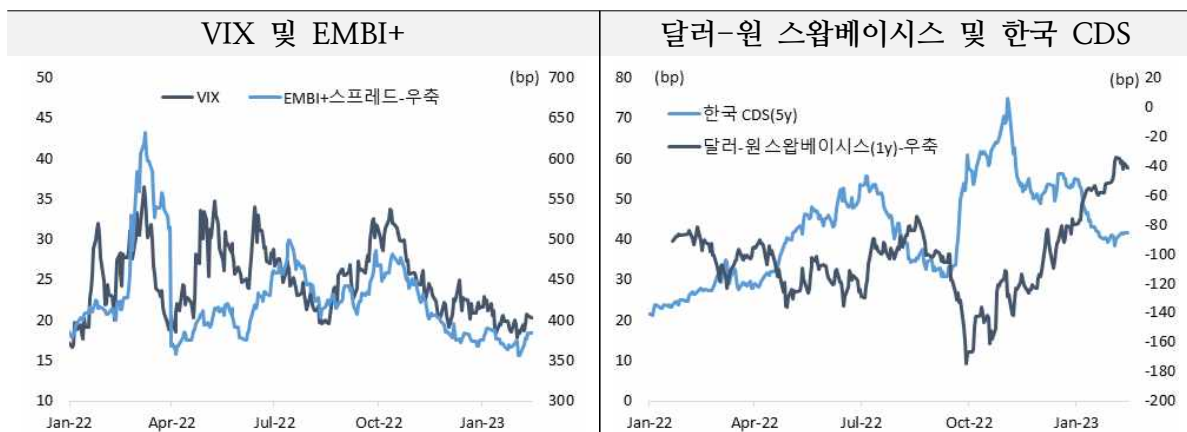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